

美대선·금리인하 호재… “비트코인, 이달 8만달러 가능성”

비트코인 연일 최고가 경신 중
트럼프 親 가상화폐 정책 영향에
美 대선일부터 10일까지 14%↑
금리 인하로 투자자도 대거 유입
현물 ETF 유입에 9만달러 예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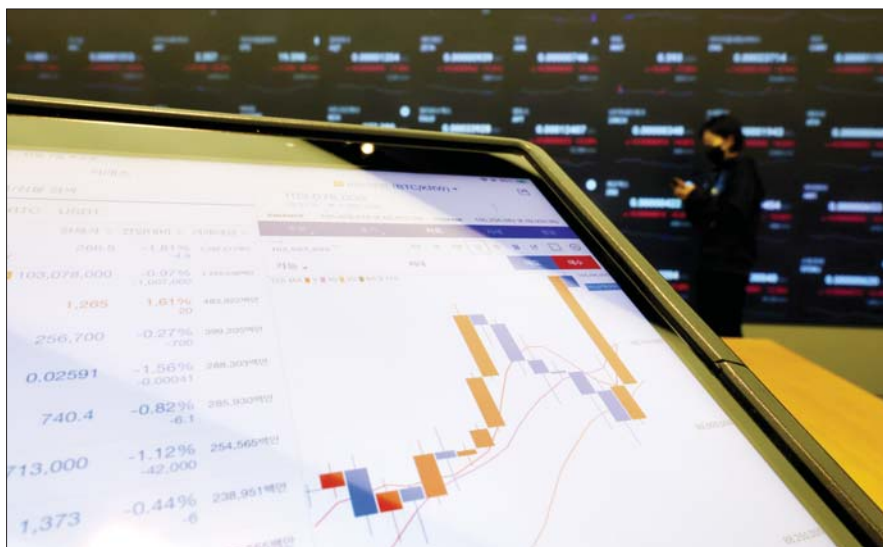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과 미국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단기변동성은 나타나겠지만 이달 8만달러를 무난하게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7만64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에는 장중 한때 7만7100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6일 7만5000달러



/뉴시스

를, 하루 뒤에는 7만6000달러를 기록하면서 연일 상승장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미국 대선일인 지난 5일(6만6900달러)부터 이날까지 비트코인은 14.2%(약 1만달러)나 급등했다.

비트코인 급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 공약한 친(親)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열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Never sell your bitcoin)"는 발언과 함께 비트코인을 국가준비금으로 삼아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트럼프 집권 2기가 본격 시작될 경우 금융 규제완화,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 개선, 미국채 발행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로 유동성 증가 등 가상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준이 지난 9월에 이어 또 한 번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도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연준은 지난 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75~5.0%에서 4.50~4.75%로 0.25%포인트(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금리 하락은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가상자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달 8만달러는 무난히 기록할 것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유입세에 따라 9만달러 기록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후 미국 증시에 상장된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순유입을 기록했다"며 "기관투자자들의 유입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 이달 8만달러 안착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물 ETF 유입에 따라 최대 9만달러도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지난 10월 ‘업토버’ (상승을 의미하는 업과 10월 옥토버의 합성어) 효과가 나타난데 이어 ‘트럼프 당선’ 당선 기대감과 실제 당선, 여기에 금리인하 효과가 더해져 상승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민승 코비리서치센터장은 “대통령과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주도하는 ‘레드 스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강력한 호재가 될 것”이라며 “반감기와 미국 대선이 있던 해마다 4분기부터 다음 해까지의 상승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에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환율 상승에 원자재값도 들썩… 건설공사비 더 오를것”

건설산업연구 '건설시장' 전망

트럼프 공약, 장기적 경제성장 저해
해외 수주는 지역따라 희비 갈릴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를 앞두고 공사비가 더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환율 상승이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 국내 물가도 들쭉이면서 금리인하를 늦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트럼프 2기 정책에 따른 국내외 건설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건설시장에는 환율 상승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건설공사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해진 지난 6월 6.5원 상승(원화까지 하락)했고, 당선이 확정된 7일에는 13.7원 오르며 급등세를 보였다.

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철강 등 일부 수입품목의 원가 상승과 더불어 국내 산업 전반의 수입품에 대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공사비 하락 요인을 상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했고,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상하원 장악에 따른 정책 추진은 1기보다 강력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공약은 미국 내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비롯해 이민통제 강화, 친환경 정책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대외적으로는 관세 강화와 대(對)중국 강경 대응 등이다.

업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시행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감세 및 친기업 정책과 정책 불확실성의 일부 완화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주식 등 자산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며 “다만 장

기적으로는 무역장벽 강화로 인한 교역국의 보복관세, 수출기업의 타격과 고용 감소,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등에 따른 투자 위축, 이민자 감소로 인한 소비 지출 약화 및 노동력 공급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의 경우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미화 총 486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수혜가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민관 협력을 통해 도로, 주택, 발전소 등 재건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대선에서 승리하면 러-우 전쟁을 신속하게 종식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진영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해야만 무기 지원을 하는 종전안을 마련한 바 있다.

반면 이스라엘에 친화적인 중동 강경
책은 중동 시장 규모가 큰 우리나라 해
외건설 수주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동 사태 확대에 대해 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중동 강경책을 예고했다. 중동 긴장도가 커질 경우 중동 국가의 신규 발주 감소와 프로젝트 지연 등으로 상황이 악화될 전망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안상미 기자 smahn1@

시민중심
더큰 파주

제28회 **파주**
장단콩
축제

The 28th PAJU Jangdan Soybean Festival
전통의 맛, 현대의 멋

2024.
11/22(금)-24(일)
 파주 임진각광장 및 평화누리 일원

PAJU

Illustrations of soybean pods: a small closed pod on the left, a medium open pod in the center, and a large open pod on the right showing three beans.